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51)

其鑑不遠

기감불원

그 역사의 거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권 중 달(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학교전연구소 소장)

우리의 새 정부가 들어 선 다음부터 북쪽에서는 이른바 919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군사 활동이 심해졌다는 보도다. 지난 정부 시절에 북과 이른 바 협정을 맺어서 피차 군사적 충돌을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를 위반하는 것이 심해졌고 노골적이라는 말이다.

국가 간의 협정이란 신의(信義)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말뿐이다. 신의란 피차간의 오랜 교섭과정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쌓아지는 것이어서 하루아침에 만들 어지는 것은 아니다. 불신도 만찬가지인데, 쌓여진 그 경험을 모르는 체하면서 반복하여 다시 협정을 하려고 든다면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과거에 잘못되었던 경험을 항상 기억하고 그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말라는 교훈으로 사용되는 말 가운데 은감불원(殷鑑不遠)이란 말이 있다. 똑똑하고 아심에 찬은 은(殷)나라의 주왕(紂王)은 차츰 사치와 잔혹한 정치를 하다가 결국 주(周) 무왕(武王)의 공격을 받고 멸망한다. 이것이 은(殷)이 겪은 실패한 역사적 경험이다. 물론 은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를 보고도 이와 비슷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없겠는가? 은감불원은 이런 사람에 대한 경고로 '은나라의 망한 역사적 교훈을 보라. 그것에 그대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은감불원과 같은 상황이 남송 고종(高宗) 시기에 일어났다. 원래 북송시절에 송(宋)은 거란족(契丹族)의 요(遼)와 연운(燕雲) 16주(州)를 가지고 다etu었다. 원래는 한족(漢族)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였던 이 지역은 오대(五代)를 거치면서 등장한 거란(契丹) 세력이 밀고 내려와 차지하였다. 그래서 이 지역을 두고 송과 요는 전쟁을 하였지만, 송은 오히려 전연(淵)의 맹(盟)이라는 협약으로 매년 막대한 세례를 요에 보내야 했다. 이만 큼 송에게 연운지역이란 목구멍에 있는 가시같은 존재였다.

그 후에 시대가 바뀌어 하얼빈일대에서 여진족(女真族)이 금(金)을 세우고 나자 송은 금(金)과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요(遼)를 협공하여 멸망시키고 그 전리품으로 송은 연운 지역을 차지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국제조약인 쉘이다. 그 결과는 잘 지켜졌을까?

금(金)은 요(遼)를 멸망시킨 다음에 연운(燕雲) 지역을 송(宋)에 귀속(歸屬)시키기는 커녕 도리어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군사를

동원하여 송의 도읍인 개봉(開封)을 두 번이나 포위하고 자기 점령지역에서 수탈하며 금은 보화를 모조리 거두어 갔다. 금기야 황제에서 물러난 휘종(徽宗)과 새로 등극한 흠종(欽宗)까지 금(金)의 군진(軍前)으로 오게 하여 포로로 잡아 갔으며 궁실의 비빈들은 물론 황실의 종족도 모조리 잡아갔다.

다행스럽게 휘종의 아들인 조구(趙構)가 마침 개봉(開封)에 있지 않았던 터여서 포로가 되는 신세를 면하고 송(宋)의 명맥을 이어서 황제에 오를 수가 있었는데 그가 남송의 고종(高宗)이다. 그가 황제에 오른 가장 큰 명분은 그의 아버지와 형님의 휘종과 흠종을 모셔 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끊임 없이 금(金)에 사신을 보내어 금(金)에 화의(和議)하고 애원하였다. 양국이 화의하게 되면 휘종과 흠종, 이른 바 이성(二聖)이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자를 보냈지만 사신으로 갔던 사람마저도 대부분 금(金)에 잡혀 있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러한 수모를 겪디며 고종은 한편으로 군대도 만들어 유지하면서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반대로 금에서 사신을 송에 보냈다. 이제 송·금이 화의하고 사신이 교환되면 고종이 그렇게 원하던 두 황제와 고종의 생모도 귀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 화의를 좋은 기회로 알고 추진하였다. 사신은 재상 진희(秦檜)였다.

물론 금에서도 송(宋)을 공격하였던 태종(太宗)이 죽고 젊은 황제 휘종(熙宗)이 등극한 뒤로 내부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송에게서 빼앗을 땅도 다 관리하기 힘들어서 화의(和議)하자는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宋)으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금(金)에서 하자는 대로 받아주면서 화의를 해야 할 것인가? 고종(高宗)과 재상인 진희는 이른바 굽기(屈己) 즉, 자신을 굽혀서라도 화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즈음 말로 굴욕외교다. 그렇게라도 해야 이미 죽은 휘종(徽宗)의 재궁(粹宮, 靈柩)과 흠종, 고종의 생모인 황태후를 돌아올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금의 사신은 남송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이때에 한때 송군(宋軍)을 총 지휘하여 금과 대결하였다가 뒷방으로 물러 가 있는 장준(張浚)이 상소문을 올렸다. 이제 금과 화의를 하면서는 요(遼)를 협공하자고 금(金)과 협약하였고 그 협약은 기대와 달리 깨지

고, 오히려 송(宋)이 금(金)에게 침탈된 역사 를 되돌아보라고 간곡히 건의하였다. 그러면 서 '그 실패한 역사적 거울은 먼 옛날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其鑑不遠)'라고 일깨웠다. 장군 악비(岳飛)도 "금인(金人)들은 믿을 수 없으며 화의(和議)도 믿을 수 없으며 상신(相臣)이 국가를 모략(謀略)하는 것은 훌륭하지 아니 하니 아마도 후인(後人)들에게 비웃음을 끼칠까 걱정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종과 진희는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일깨워 주었지만 당국자는 어찌하였을까? 당장 화의가 급하다고 반대의견을 뒤로한 채 허겁지겁 화의를 진행하였다. 드디어 소흥 9년(1139년)에 송(宋)과 금(金)은 화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물론 1차 목표인 휘종의 재궁과 흠종을 귀환하고 금에 칭신하며, 매해 25만량의 세례를 보내기로 하고 황하 이남을 다 달라는 남송의 요구는 거절당하고 하남과 섬서(陝西) 지역만을 남송에 귀속시키기로 하였다. 송에는 큰 부담이었지만 그것이라도 제대로 지켜졌을까?

힘이 없어 협약을 하고 지켜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짓이다. 금(金)에서 주전파(主戰派)인 완안종필(完顏宗弼)이 군대를 끌고 다시 남침해 왔다. 그대로 남송의 악비(岳飛)와 대결하여 두 번이나 금군(金軍)을 이기어서 완안종필도 비로소 송금화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바로 협의대로 휘종의 재궁을 돌려 준 것은 아니었다. 겨우 금에서 2급 작위를 주었던 죽은 휘종에게 작위를 한 등급을 려주었을 뿐이었다. 대신 남송에서는 화의의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했다. 남송을 버티던 장군 악비(岳飛), 한세종(韓世忠), 유기(劉錡), 양기중(楊沂中)의 병권(兵權)을 회수하여 화의 실행을 준비하더니 그것도 부족한지 악비(岳飛)를 사사(賜死)하였다.

이처럼 송은 화의 실행의 조건을 만들었어도 금은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 휘종의 재궁과 그의 위현비(韋賢妃, 고종의 생모)는 돌려보냈지만 흠종은 금(金)에서 그 후 15년을 더 살다 그곳에서 죽어야 했다. 장준의 말대로 지난 실패한 역사의 거울을 보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고 또 실패의 역사적 거울이 되었다.

남북 간의 협정을 그동안 적지 않았다. 박대통령시절부터였으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 대화나 협의는 해야 하겠지만 항상 지난 실패한 역사의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하지 않을까?

임진왜란 당시 권두문 군수(검교공파 21세)의 분전을 기리는…

제45회 평창군 노산문화제(충의제, 성황제) 봉행



노산성 성황제 장면.



초현관 심재국 평창군수.

현관 정창호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종현관 김진홍 평창경찰서장이고 충의제(忠義祭)는 초현관 심재국 평창군수, 아현관 심상용 평창향교 전교, 종현관 최태우 노산문화제 위원장이며 노산성터에서 있었다.

권두문 군수에 대한 기념사업등은 검교공파를 위시하여 추진중이며 자료집도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향토연구가이며 작가인 엄기영 선생이 이에 대한 연구가 많고 현 영월읍장인 권혁수(추밀공파 36세) 족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한다.

차후 대종회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10월이 오면 많은 족친들이 문화제에 참석하여서 높은 가을 하늘 아래 노산성 전투재현, 민속경연대회, 백일장, 노래자랑, 야시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조상의 뜻을 기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글 권오철 기자

남강공 권상 추향제 봉행

남강(南崗) 권상(權常, 21세, 추밀공파, 1508~1589)의 추향제가 10월 11일 충북 청주시 옥산면 환희 3길 38-20에 위치한 백록서원(白鹿書院, 향토유적 제 96호로 지정)에서 봉행되었다. 남강공 종희 권동육 회장을 비롯하여 도사공(都事公) 종희 권영식 회장 등 많은 후손과 지방 유림들이 참석하였다.

백록서원은 1710년(숙종 36)에 지방 유림의 공의로 남강공의 둘째 아들 충정공(忠貞公) 권협(權 , 1542-1618)의 둘째 아들인 도사공(都事公, 필중必中)이 청주 옥산면에 입향(入鄉)한 후 그 후손들과 지방 유림들이 남강공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였다. 그러나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는 우여곡절을 겪고 난 후 다시 복원되었고 1965년에 보수하였다.

남강공은 후손들에게 심중대덕경세언인(心中大德經世彦人) 8자로 유훈(遺訓)을 내리고 후손들의 향렬자(行列子)로 쓰도록 하였다. 35세손은 8자 중 세(世)에 해당하여 택(澤)자를 향렬자로 쓰고 있다. 현 국정원 권춘택 제1차장이 도사공(都事公) 후손이다.

권택국 이모트랜스코리아(주) 대표이사



지역종친회와 청장년회 회장 및 총무(사무)국장의 명단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지역종친회 및 청장년회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임원개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종회에서 최근 명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다음 양식에 의거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명단 제출 내용 (전지역, 설립 추진 중인 지역 포함)

(회장) 지역종친회장 및 청장년회	
지역명	
성명	
派/세	/
출생년도	
자택주소	
휴대폰번호	
직장(사업체)	

○ 제출 기한 : 2022. 11. 25.

○ 추후 회장, 총무 변경 시에도 대종회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무)국장 명단 제출 내용 (전 지역, 설립 추진 중인 지역 포함)

(총무, 사무) 국장 지역종친회 및 청장년회	
지역명	
성명	
휴대폰번호	
종친회(청장년회) 회관 주소	
회관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제출방법

- 우 편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22길 11. 안동권씨대종회(2층)

- 팩스 : 02-2695-2485

- 이메일 : andongkwonmun@daum.net, ankwon2695@naver.com